

이영표 "전현무 멘트, 축구선수에게 치욕적이다"

등록 2026.05.31 13:30:00 | 수정 2026.05.31 13:32:47



[서울=뉴시스] 손정빈 기자 = 이영표 KBS 축구 해설위원이 방송인 전현무 중계 멘트에 "선수에게 치욕적"이라고 지적한다.

이영표와 전현무는 31일 방송하는 KBS 2TV 예능프로그램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서 중계 연습을 한다. 두 사람은 2026 북중미 월드컵 중계를 함께 맡았다.

전현무는 "이영표 선수 축구 중에 걸어다니고 있어요"라고 하자 이영표는 "전현무씨 멘트는 선수에게 치욕적이다. 기동력이 떨어졌다거나 움직임이 둔해졌다고 표현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자 전현무는 "난 어려운 말 쓰지 않는 중계"라고 한다.

전현무는 또 "이영표 선수 어이없는 발재간이죠"라고 해 웃음을 자아낸다.

두 사람은 축구 중계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티격태격한다.

전현무가 "하루에 커피를 5잔 이상 마신다"고 하자 바른생활사나리로 손꼽히는 이영표는 "바나나가 근육 회복에 좋으니 커피 말고 바나나 주스를 마셔라. 전현무씨 커피를 3잔으로 줄이는 게 내 목표"라고 한다.

전현무는 "단언컨대 쉽지 않을 거다"고 말하며 이영표에 맞선다.

©공감언론 뉴시스 jb@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